

미테-우그로 세대교체... “분업 통해 재도약합니다”



김형진씨 운영 맡고 조승기씨 ‘국제 교류’
실험작가 전시회 등 지원...기업과 연결도

4 미테-우그로 조승기·김형진씨 “대안공간 자랄 문화적 토양 만들어지길”

광주 대안예술시장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는 지난 2009년 젊은 작가들과 기획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 대안공간이다. 그동안 다양하고 실험적인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열었고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태극, 일본, 네발 등 해외 국가들과 국제교류를 진행하면서 문화공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미테-우그로가 세대교체를 한다. 지난 6년간 미테-우그로를 이끌어온 조승기(45)씨가 한발 물러나고, 한국화가 김형진(36·Haru, K)씨가 공간을 주도적으로 맡아 운영하게 됐다. 전체적인 기획은 김씨가 틀을 잡고, 조씨는 태극 등과 꾸준히 진행해온 국제교류에 도움을 주게 된다. 공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내린 결정이다.

“미테-우그로가 정체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안공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했던 것 같았죠. 대안공간은 정체돼 있으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공간 자체도 쇠퇴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던 중에 형진씨가 떠올랐고, 고민 끝에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조승기)

둘은 지난 2009년 처음 인연을 맺었다. 미테-우그로가 개관하고 그해 진행된 전

국 청년작가 공모 및 전시에서 기획자와 작가로 처음 만났다. 조씨는 “형진씨가 당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포트폴리오만 봤다”고 웃었다.

홍익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와 작품 활동을 겸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학원을 마치고 다시 고향인 광주에 가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그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막 내려와서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와 의재미술관 레지던스에서 작품을 하면서 미테-우그로와 꾸준히 교류했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작가와 기획자들이 미테-우그로에서 많이 활동했거든요. 조승기 선생님과도 전국 20~30대 청년 작가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김형진)

김씨는 2013년 본격적으로 미테-우그로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실험적인 작품을 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를 함께 기획하고 태극 등 해외 작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테-우그로를 운영하는 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작가, 기획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전시, 레지던시, 국제교류 등 미테-우그로의 표면만 보고 했던 말들

이었어요. 실상 내막은 잘 모르고 말을 꺼낸 거죠.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만 하더라도 저희가 청소와 빨래, 설거지 등을 도맡아 해요. 외국 작가들이 올 경우 24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안내해주는 등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형진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조승기)

김씨도 공간을 맡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미테-우그로라는 공간 자체에 누적된 피로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항상 문제 제기를 해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방향에 대해 고민해온 미테-우그로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흔쾌히 조씨와 뜻을 함께 했다.

대안예술시장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김씨가 미테-우그로를 맡게된 이유이기도 하다.

김씨는 “대안예술시장 초창기만 하더라도 겨울이면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시기에도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며 “대인시장 프로젝트가 상인과 작가를 이어주는 것이라면 이런 토양에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미테-우그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테-우그로”를 함께 키워 갈 조승기(왼쪽)씨와 김형진씨가 대안예술시장 골목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말했다. 앞으로도 광주 미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미테-우그로와 같은 공간이 많이 생겨나는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는 반짝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

진 작가들을 다시 한번 만나볼 계획입니다. 좋은 젊은 작가들이 성장 발판이 없어 작업을 그만두거나 작품을 하면서도 선보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실험적이고 특색 있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를 할 계획이고, 상업성이 있는 작가들을 기업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김형진)

조씨도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국제교류 등 해외 레지던시는 도와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해외 작가와 공간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조승기)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원시와 문명... 인류학적 상상 속으로

최현 전남대 명예교수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 펴내

인류기원의 신비에서부터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원시와 문명을 흥미롭게 다룬 교양서가 발간되었다.

최현 전남대 인류학과 명예교수가 펴낸 ‘부시맨과 레비스트로스’(폴빛출판사)는 인류의 태초에서 현재, 야만과 문명, 민족과 종족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른다. 저서에 담긴 글들은 학술적 논문이 아니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18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기존의 책에 그간의 시간적 변화를 수렴, 통계 수치와 논거를 재정비에 발간했다. 그는 인간의 다양성과 보편성은 스무 해 남짓한 시간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일



관된 관점을 견지한다. 사실 아프리카 갈라리 사막에서 사는 가장 원시적인 부족 부시맨,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지성 레비스트로스는 인간 군상의 양 극단을 대표한다. 이 같은 대비는 인류가 지닌 다양성을 웅변해주는 상징적 존재로 다가온다.

최 교수는 “큰 바다와 같은 인류학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며 “인류학적 상상력은 우리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고 인간 사회의 본질을 바라보도록 한다”고 말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화조도’

민화, 틀을 벗다

LH 휴랑갤러리, 30일까지 최영미전

형식이나 틀에 얽매지 않고 과격적으로 그려낸 민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LH 휴랑갤러리(광주시 서구)는 오는 30일까지 민화작가 최영미씨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민화는 서민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고, 생활상과 정신세계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소박한 꿈과 희망이 담기기도 했다.

최씨는 이런 민화의 매력을 ‘화조도’ ‘파초도’ ‘군계도’ ‘연화도’ ‘책가도’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인다.

최씨가 그린 민화 작품들은 보는 것을 벗어나 그림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연화도’에서는 고결한 군자의 모습, ‘괴석 모란도’에서는 부귀와 장수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해와 달이 나란히 떠 있고, 다섯개의 봉우리가 함께 솟아 있는 ‘일월오봉도’는 음양 오행의 조화를 의미한다.

작가는 “오랜 세월 반복되어 그려지면서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담은 상징물 속에 우리의 바람과 욕망, 정서를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 전통문화예술협회 공모전, 한국 문화미술협회 공모전 등에서 입상했다. 문의 062-360-3100.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입춘방 써 드려요

광주민속박물관, 2월 1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정양의 해를 맞아 오는 2월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1층에서 ‘2015 을미년(福)을 부르는 입춘방’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점숙, 박용주, 이옥란, 이옥자씨 등 지역 중견 서예작가 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선택해 현장에서 바로 입춘방을 받아갈 수 있다.

한편 24월기의 첫 마디인 입춘은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이 날 각 가정에서는 대문과 문설주에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 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입춘방(立春榜)은 춘축(春祝), 입춘첩(立春帖), 입춘축(立春祝), 춘첩(春帖) 등 다양하게 불린다. 문의 062-613-5366.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